

# 팔복동 산단 주변 재생사업 통합추진

### 전주시, 팔복예술공장 조성·철길 명소화·금학천 정비사업 '문화공간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주시가 팔복동 노후산업단지 일대에서 각각 추진되는 팔복예술공장 조성사업과 철길 명소화 사업, 금학천 정비사업을 '문화공간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묶어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장기확대는 6일 팔복문화예술공장 현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인근 마을 주민 문화·예술인, 건축전문가 공단 입주기업 대표 및 근로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팔복동 제1산업단지 문화공간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팔복문화예술공장 조성 사업과 연계사업인 금학천 정비사업, 팔복동 철길주변 도로정비사업(철길 명소화 사업) 등 3개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와 문화재단이 1천명의 얼굴을 만나, 1천명의 마을을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매주 진행하고 있는 현장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팔복문화예술공장의 사업현장도 둘러봤다.

시는 이날 설명회를 시작으로 팔복동 제1산업단지 주변지역에서 추진되는 이들 3개 사업을 하나의 명칭으로 추진, 팔복동 산단 주변 재생사업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팔복예술공장 조성사업은 전주시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2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총 5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문화재생사업이다.



지방자치와 전북발전

6일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정치외교학과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초청 강연에 송하진 지사가 '지방자치와 전북발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기획단 및 전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했다. 또, 전북지역 작가 20여 팀 30여명이 참여하는 전시, 레지던스 공동체 예술·교육 등 3개 분야의 시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었던 팔복동 지역주민과 공단근로자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연계사업인 팔복동 철길주변

도로정비사업은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마을주민과 공단 근로자, 탐방객들에게 자연과 가까운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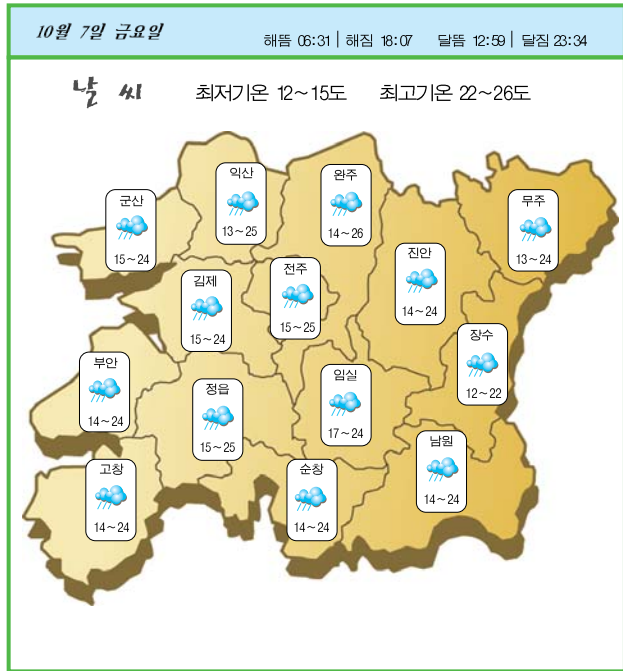
시는 오는 2018년까지 총 63억원을 투입해 금학천 주변의 양방향 도로를 편도 1차로로 줄이는 대신, 여유 부지를 인도와 가로수 등 공공용지로 조성해 쾌적한 생태환경을 갖춘 명소화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금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올 연

말까지 2.18km 길이의 금학천의 제방 축제 및 보축, 배수펌프장 및 우수지 설치 등이 추진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주민과 예술인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과 참여를 이끌어 내 도시재생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마련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 도교육청, 중학생 학력진단평가 전면개편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실시했던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와 3학년 도학력 평가를 내년부터 전면 개편한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연간 4회 실시되던 중학교 3학년 평가는 3월과 9월의 2회에 걸쳐 학력 진단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중학교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학년 진단평가는 2학년, 3학년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도교육청의 참학력 관과 맞지 않는 선택형 평가 방식을 탈피해, 학생 성장 중심 수업과 연계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력과 창의성을 길러주

기 위한 취지다. 평가 실시여부는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이며, 평가 희망학교에만 문제가 배부되고 동일한 날짜, 동일 시점표로 5개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대해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 후 성적 처리도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타학교 학생들과의 비교도 불가능한 방식으로 개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결과물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수업의 환류 자료 등으로 활용돼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과정중심 수업과 평가방법의 개선에 한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전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감소

초·중·고등학교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새누리당·충북 충주)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520명이던 전국 원어민보조교사 수 올해에는 4,962명으로 41.8% 감소했다.

전북지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감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12년 도내 영어보조교사는 314명(초등학교 143명·중학교 78명·고등학교 62명·기타 31명)이었던 반면, 올해에는 249명으로 65명 감소한 것이다.

감소 현황을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19명씩 줄었고 고등학교는 28명이 감소했다.

이종배 의원은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민형

## 내일-8일 오전 남부지방 많은 비 예상...추가피해 우려

7일 밤부터 8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7일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새벽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다가 아침에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제8호 태풍 차바(CHABA)가 동쪽으로 빠져나간 자리로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하고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기압골이 북상함에 따라 많은 양의 수증기가 남부지방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8일 새벽과 오전 사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이라며 "피해가 발생한 그 밖의 남부지방도 많은 비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 대학생 현장실습도 열정페이 온상

현장실습을 나간 대학생 10명중 7명은 실습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현장실습은 교육이 목적이란 이유로 제대로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열정페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 의당 이정미 의원이 대학생 현장실습현황 전수조사 결과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학기 와 동계·하계 방학 중 현장실습에 참여한 대학생 15만3313명(업체 9만 3177개)중 실습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3만1887명으로 20%에 불과했다.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 4명중 1명만이 실습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뉴스시스

## 전주시, 경주 태풍피해 긴급 지원단 구성 파견

### 침수지역 살수 위해 1차로 빨래차·살수차 1대 지원 밭차 1대·자원봉사자 40명 2차 지원단으로 파견

전주시가 지난 겨울 폭설 때 제설 장비 지원으로 마음의 빚을 졌던 경주시가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긴급히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경주시는 지난 겨울 전주시가 제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자 신속한 제설차량 지원으로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전주시는 태풍 차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단을 구성, 경주에 즉시 파견해 피해복구 작업 지원활동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피해복구 지원단 파견은 전주시 전역에 폭설이 내린 지난 1월 제설차를 파견해 제설작업을 도운 경주시와의 피해복구 상호 지원 약속에 따른 것이다.

경주시는 앞서 지난달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한창인 가운데, 남해안과 동해안을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또다시 하천이 범람하면서 차량 피해와 도로 하천, 비탈면 등의 소규모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6일 침수지역 세척 및 도로 토사제거를 위한 살수를 위해 1차로 빨래차 1대와 살수차 1대를 지원했다.

또, 7일에는 라면과 수돗물 병입수 '전주얼수' 등의 생필품을 실은 밭차 1대와 자원봉사자 40명이 2차 지원단으로 파견돼 경주시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경주시 피해 복구가 해소될 때까지 인력과 장비, 물자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www.nonghyup.com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자라고 행복해지도록! 새로운 농협이 언제나 당신의 꿈과 함께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전안근지부장	장기요	최은영	조항	장선용	전북인상협	조항	장선인성
전안농협	조항	장김문종	부귀농협	조항	장결종욱	무진광추협	조항	장송계근
			성수농협	조항	장손갑용			

같이의 가치 NH농협